



내무성 보안국 국장 김동수 소장.

김동수 선생은 1910년 2월 27일에 원동변강,
나골노크-무석리주, 한카이 구역 모제르노예촌 변농
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8년에 함흥에서 인민
학교에 입학하여 1922년에 졸업하였다. 1923년에 숙
이골 구역 휘정리촌에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
하였다. 중학교 학생시절 특히 1926년부터 레닌공산
청년회에 입회하여 학생들 속에서 공청사업은 열성적

2.
으로 참가하여 제복 학교 공청단체 책임비서로 선거
받아가지고 1929년에 공학을 나왔다. 1929년부터 1930년
까지 일년간 구역 민청 위원회 책임직으로 위임으로 일하면서
살던 공산당에 후보 당원으로 임당하였다. 1930년에
선생의 나이 20세때에 벌써 권농촌의 연인들의 신임
을 받아 모스크바 농촌 연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 되었다.
그당시 원동 변경에서는 지주들을 몰살하며 토지들을 몰수하고
제농민 농민들을 결속하여 농촌 집단 경리 정책을 전면
적으로 써왔던바 김동수 선생은 원년간 부름되어 농촌 단합
회 정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1932년에는 한카이
군당 과정에 따라 블라지보스크 당 학교에 입학하
여 3년 동안 수료한다음 1935년에 필하고 군당 지도원으로
1년간 일한다음 원동변경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입
학하였다. 1937년에 원동으로 불어 한민들을 전반적으로 강려
이주한리 관련하여 공산대학을 총무로 일리 보하고 중앙시
(Tjauksien) 하유겐주 중철척구역에 도착하여 2년간 군당
지도원으로 일하였는데, 노련 연년의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
인 1941년부터 1942년까지 중철척군당 제2 책임비서
로 일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1939년에 중철척구역 "심철의 20주년"
골노르 리나골라이 비반 켈레몬노위치 딸 리다 지아
나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다.

1942년 11월에 군당 제2 책임비서가 게게게의
호출을 받아 모스크바에 출장갔다가 현지에서 하고 집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김동수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지 항공, 전화 한 번도 안 걸었다

단 한가지 2개월 20일이되면 봉급만 우편국을 통하여 모스크바에서 꼭꼭 모금하였다. 봉급액은 낮이박 직부 봉급보다 약 50% 더 높은 금액을 보내왔었다. 그런데 부인과 부모들은 김동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생일 날이나, 귀엽 날이면 계속 울고만 계시었다. 소식은 없을 지언정 그래도 봉급 대신에 봉급이 보니까 어디까지 무엇인지 하고 살아 있다고 짐작하며 기다리며 살아갔는데, 1944년 말 12월분 봉급이 두절 되었다. 좀 개월간 그렇게도 정확하게 모연 돈이 딱 끝났었다. 부인과 부모들은 기가 딱 막혔었다. 누가 데려간 방향을 알았으면 그 기관에 편지를 물의라도 할 수 있었겠는데, 며칠 뒤에 개개비 결시를 모스크바에 출장가신다고 하고 가신 양반이 소식이 없으니까 큰 야단이였다. 선생이 일하시던 군대에 가서 물러히어도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정확하게 모연 돈이 안이 오는 것을 보니 사람이 죽은 것만 사실이라고, 모든 것을 추측하였다. 부인과 양측 부모들은 동수가 꼭 죽었다고 결론 짓고, 언제는 죽은 날을 모르니, 생일날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1945년 2월 27일날 집마다 가까운 친척들과 동부들을 청하여 놓고 물면서 제사를 지내었다.

집을 떠난 이후 김동수 행적.

김동수 선생은 1942년 1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하슈켄트 역전에서 며칠 뒤에 김선생은 어떤 기관이 기차표를 끊어다 주려, 모스크바 하슈켄트 제 5호 플랫폼에 안착시키려, 모스크바 가장 역전에 도착하면 누가 맞아줄 것이냐 근심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노기나" 광장에 있는 소련공산당 중앙본부, 제 부층에 있는 외사부 부장을 찾아 하슈켄트에서 왔다고 하면 잘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김선생은 그 때의 기관이 알려주는 말을 의심하여

듣고, 또 한가지 밀러주던 말, 기차칸에서 누구나 할것없이,
 가깝은 친척이라도, 만나면, 자기 불일이 있어서 모스크바에
 잠깐 다녀오려 간다고 대답하러던 말도 잔 기억하고 모스
 크바에 부속이 도착하니 김선생이 한 차 량 문앞에서서
 어떤 역시 기관 대위가 경례를 불어면서 라유켄트에서
 모시는 김동우 선생인가 하고 불었다. 그렇다고 하니, 선생
 의 눈에서 가방들로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가라는것이
 었다. 그 기관의 뒤를 따라 역의 광장에 나오니 거기에는 "월
 가" 등용차 한대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차 앞에는 문전부
 위에 또 한명의 기관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리는 김선생을
 보고 차 밖에 나서서 타쿠바같이 인사하고 열길에 모시노라고
 얼마나 무고 하셨느냐고 물으며, 모사이에 라유켄트 기차도
 어떤가 하고 물는등 여러가지 다 뜻한 말들을 많이 하
 였다. 김선생은 물는 말에 대답은 하나. 또 다른 어느 방낭도,
 어떤 기관으로 가는지 알수가 없었으나, 꼭 참고 불려 앉고
 차가 가는 방향이란 살펴보았다. 차는 계속 달리며 모스크바
 시 주변 모지이브크 대 출로, 좌소 동양인들이 쳐들어 오려고 애쓰
 던 방낭으로, 비교적 소나무들이 짙어서, 많은 고층건물들이 들어선
 특별 살림구역에 도착하였다. 김선생의 생각에는 어떤 경찰학교
 에 가는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여기는 아무런 학교 냄새라 하지
 않은 보통 살림구역같은 느낌이었다. 한 부층 바베바르에 도착
 하자 차가 멈춰지니 기관 및 열차 같이 김선생은 짐하를 리
 용하여 5층에 올라가자 베르를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사람이 캅카스 민족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기관
 을 보더니 열차를 끄는다고 불을 열면서 어서 들어오려라고
 청하였다. 김선생은 복로에 들어서니 방을 가르치 면서 이것이
 선생의 방이라고 가르쳤다. 김선생이 자기 방에 짐을 풀고 놓는

사이에 권들은 야구경에 보이는 다른방의 문물 열어나 거기는 책상
 4개 놓여있는 도서관 비슷한 방이었다. 또 다른 방을 드러다 보니
 그 방은 어떤 물리학 실험실 같기로 하였다. 김선생을 맞으러던
 권관은 말하기를 이도서관에서 공부하시고, 다음 이 실험실에서
 무전기에 대한 이론과 실지적으로 무전을 발신 수신 하는, 연습을
 하는 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복도 하나에 작업은
 2개 칩은 2방, 실험실, 화장실 하나만 있었다. 복도에 걸화각
 대가 있었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말을 들을수 없으나, 자기 마음대로 전
 화를 걸수 없게 하였다. 권관이 말에 의하면 어디든지 피검자는 쓰
 지 말고, 전화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외출을 금지하지 않으나, 다만
 호도 필라 일등에 나갈수 없으나 같이 지식을 동무로 세명이 조직적으로
 금방이나, 장라관와 상점에 다녀볼수 없다고 하였다.

2 일간 휴식을 끝내 다음 학습이 시작되었다.

학습은 12월 1일 무전공 나시안은 무전 통신에 대한 이론 교시란
 2시간을 무전기로 실습하는 일이었다. 다음 점심 2시간 휴식
 후 2시간 이론상 복습하였으나, 아무런 강의도 없고, 교원(권관등)이 프포
 그란과 보충재료들을 갖고 와서 간단한 담화를 한다음 과제를 부여하여
 이런 재료들을 연구하라고 하고, 부분적 강의 자료들은 직접 주고, 대부분은
 책장들을 가르치며 리 책장들에 있으니 리본하시라고 하였다. 교원은
 벽에 붙은 과정표를 가르치며 2 일후에 만나게 되는 데 그 시간에는
 김선생의 공부방법을 소개 듣겠다'고 하였다. 일반 사회 과학 리학의 경
 험을 보니 대략 2년 분이었다. 그런데 전체 강령은 세마나 형식의
 큰 학습이 진행되지 하였다 김선생이 살고 있는 방 곁에 방에는
 2 명이 살고 있었으며, 한사람은 빈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란 사람이었다. 3 명이 살고 있었으나 서로 흥화 할수 없
 어었다. 다만 야구 팀은 러시아 말을 대략 말할수 있어
 어리어 왔으며, 언제 왔느냐 말어나 할수 없었다.

이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김선생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유사하
 였으나, 교원들은 권려 다른 다른 사람들이였던바, 그 두사람은
 전혀 다른 교원들이 가르쳤다. 김선생은 당시 조선의 경제
 자연 지리, 정치제도, 제 국가들간의 외교관계, 일본의
 침략정책이 세계화와, 특히는 만주, 중국, 산천 리의 관계,
 조선어와 일어에 대한 개념 등으로 연구하였다.

식사는 러시아 여인이 한분이 와서 대일 취사하였던바 그
 당시 전쟁의 여정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급이였다. 소
 고기나 닭고기는 얼구리 안밖이지만 어디서라도 포수까지 얼
 어다가 먹이곤하였다. 식량을 살어보는것을 보면, 1주 2차씩
 러시아군인들이 살어다 복귀의 물고 가곤하였다. 식사는 3번이
 같이 한가지로한사에 먹곤하였다. 1달 살아가면서 그 집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니 전부다 그런 형식으로 공부하는 모양이였다.

이 외에 1개월에 몇번씩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한 강의, 군사예를, 특별한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회에 초대
 하곤 하였다. 그러나 2년동안 공부하는 사이에 1년묵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김선생의 짐작에는 적어도 30이명은, 1년묵
 있는 사람들이 풍나시아 유즈베코 공화국에서만 봤으리라고 짐작
 되나 실생활에서는 한명도 만나본일이 없었다. 아나톨리 고복강령
 에 멘바를 그렇게 구자가지고, 한교형사람들은 서로 만나볼무이
 게 안든것만은 사실이다. 그도 사실에 있어서 한교형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라 할시에 그러나가면, 실지공작시에
 한명만 체포되면 전체가 다 파환될 두려움때문에 그렇게로
 직한것로 사실이다. 레플 들어 하유헌트 대학생 구르프가 그
 령계 실패를 당하지 안하였던가, 공부는 다 같이 안하였으나 대
 학생들이 기르미물에 그들이 외교적 일정한 시기에 하유헌트에서
 불발한것은 삼순 알고 있는 관계로, 자기가 조선에 나왔으니 다.

학생들로 나왔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대학생 7명 중에서 제일먼저 농촌정리 관계 사실 대학생 김예림이 체포되리거나 대학생들의 혁명 외형을 띠며 주어서 7명이 몽땅 체포되었다가 8.15 오후 일전에 평양감옥에서 권북과 교살당하고, 따라서 맨 처음 체포된 김예림은, 다유권은주, 블라르나야 스웨스다 끌레르그 황녀가 었던바, 그놈은 변절공물로 사형하지 않고, 평양감옥에 갇혀 8.15를 맞게 하였다. 평양이 해방되자 평안도 평북도 물건들이 노획되는 중에 김예림의 변절이 알려지며 그는 모스크바에 호송되며 20명 징역을 받고 시베리아 어느 농부노에서 자기의 불명예스런 자식으로 증명받았다 평양감옥에서 교살당한 6명 중에는 혁명출생 신봉남이란 훌륭한 대학생도 있었다. 신봉남은 중앙아시아 국립공화대학 역사학부 2학년생이었는데 김선생은 본래 성격상 아주 단정하고 정직한분이었으나 2년동안 가혹을 더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고립된 특별분타기소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 교생이 풀려나 조국의 해방과 관련된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악권고후를 후회하고 코에서 피는 눈물도 질러버린 것은 눈물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정찰임무는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독다짐하고 1944년 말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원종(평양)만주를 거쳐서 평양, 서울로 향하여 도착하였다. 김선생은 자기 내력을 할 줄 식히지 않기 위하여 만주에서 조선에 나가는 함부삼과 건설로 동지들과 동행하였던바 그들은 회노광에서 막노려하는 막노동반봉장과, 반강도와 비슷하였다. 그들과 사상문화적공통성은 없을 알만치라도 언어불통은 없었지만 자기 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복종하며 원어도 편이었다. 그러나 김선생은 지식이 풍부하여서 건설삼과들에게 이런사한 하나는 꼭 필요하였다. 김선생은 서울에 도착하여 건설삼부부라들이 할수면 물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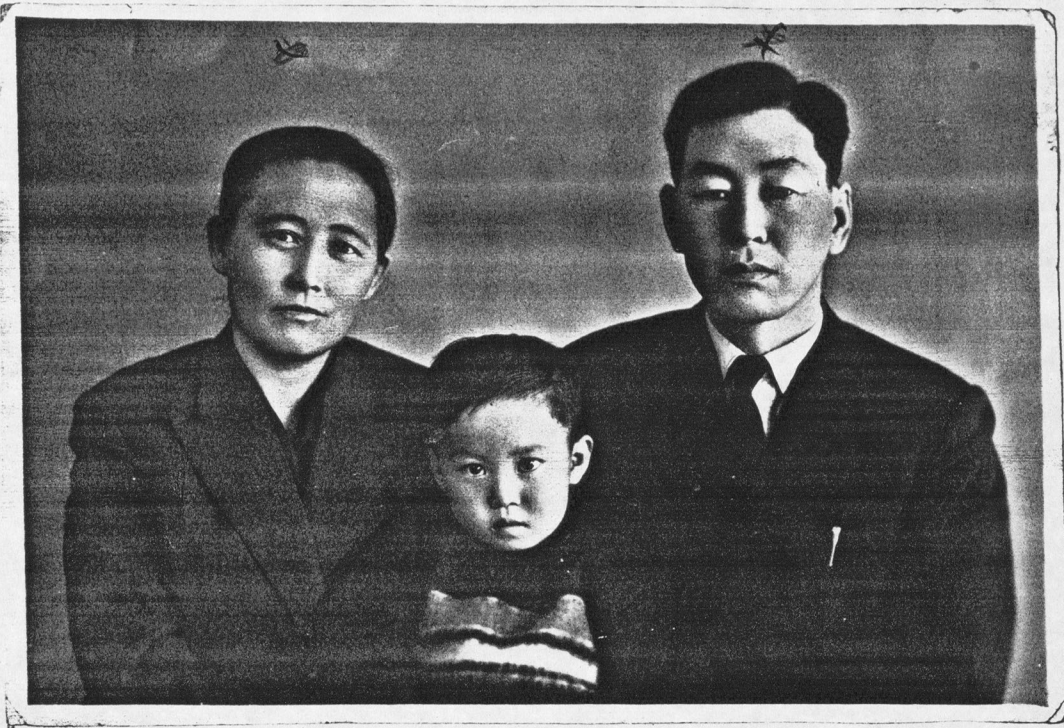
주요 건설이나 수리의 주안점과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한결 막나서
 청탁업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였다. 이렇게 일을 조직하고서도 자기
 정상으로 태봉이라 하고, 터에서 떠나 땅주에 갔던 대구에 가 단터
 오겠다고 약속 그 도시를 다니며 자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
 른 한편으로는 사과 장사를 하여 돈버리로 하였다. 대구에서 사과
 한봉에 1원씩 주고 20봉을 사가지고 서울에 도착하여 과일상권
 에 넘겨주어도 4원씩 받았다. 그렇게하여 한번 대구에 갔다가
 9년 왕복 차전 하고, 다른 비용들은 다 지하고서도 35 원-
 40 원은 거둬들였다. 김선생은 서울에서 적당한 일 자리를 찾았
 으나, 함경도 출신 농민 일자리에 실업하지 않았다. 그리하여서 함
 북에서 경상도 대구 출신으로 가장하고 경상도에 다니면서 노동감
 구 받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1945년 8.15에 일본이 패
 퇴 망을 항복하였으나 김선생의 임무는 계속 남아 있어 1950년
 6.25 전쟁시기에 북한이 남침하여 서울로 귀향하자 김선생
 자기 임무를 맡고 한어막 무전으로 모스크바에 보고하고 북한
 정부에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김선생은 아직 북한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필리핀시대와 같이 사설을 건너 다니면서 자기 본으로
 돈을 벌며 자기를 살구며, 경찰 임무로 수행하였다. 그의 문에
 일생이 정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였다. 한번은 기사 지면
 에 이르게 되어 한어막 항복까지 60 원을 받고 팔아 상
 계를 유지하였다. 이 모든 사정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사
 란어라곤 없었다.

김동수 선생 부인 리씨와 지어나 4 딸과 여섯남 와 임
 북 부모들은 김선생이 돌아가셨다고. 1945년 2월 27일에
 제사를 지낸후 1개월이 지나자 다시 용금이 정기적으로 매달
 20 일이면 우편국을 통하여 여섯히 이천금액 그대로 보내
 하였다. 식미를 잃고 반쯤 앓는 몸으로 아이들을 데

고 기쁨없이 지내던 그때지마나 양은 나월에 남호보양으로
되살아나 웃는 낯으로 남들과 자기 남편이 사라졌다고 자랑
하었다. 입세는 다만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었다.

그때지마나는 자기 남편이 경찰 임무를 맡고 조선에 나가있
다는것은 그리 잘 짐작하였기때문에 일제가 패망 후 함
한 1945년 8.15 이튿날에는 자기 남편을 만나볼 날이
가깝아올다고 기라렸으나, 일제가 패망함다함에도 5년
이나 지나, 남의 남편들은 조선에 나가 사업하기 때문
에 1946년 봄 봄여울 가쪽들로 북향하여 이르러가느라고
아무리 허세하는지 김신생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없이 다시
특히 허기 시작하였던 부분적 돈 소문에 의하면 경찰직구
역 제2 기계-드락또르 임경호 정치부장 황 나골라이, 조선
극장 예술지도자 겸 감독 김진씨등을 평양에서 호감자 장
사 노릇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김동수
선생도 평양 어느 극장에서 보다는 사람도 있으나 자서한
이이기 하여볼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등 갖가지 돈 소문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러나 용금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일 큰대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는것은 믿을수 없었기때문에
항상 불평하면서도 속 많은 돈을 하였다. 살아라는 살림살이
극에서 보니까 돈을 돈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사는 한편 아직 그때까지도 원 니골라이 반반 권케로도 위치가
계속 사회보장 국유노 책업자로 일하고있었고, 어머니 생전에
누이 동생, 남동생들이 귀국한의 살근 없이 아무런 남 편은
없어 있었다. 다만 남편이 그림은 것이 불레였으나 그것은
다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형제를 잘 보살피고
양육고 있었다.

김동추 선생이 조선 해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1944년, 일제시대 불어 남한에서 경찰운동을 하시었다



사진은 김동추 선생이 내무성 보안국장으로서
게릴라 - 1957년 2월 찍은 것이다.

는 평정서가 흐른 게 게릴라 중앙본부로 불어 조선로동당 중앙
본부에 도착하자, 김일성은 김동추 선생을 내무성 정보국
부국장으로 1950년 8월에 임명하였다. 전쟁의 혹독한
시기에 평양을 내어놓고 후퇴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다음
1951년 7월에 김동추 선생은 평양 특별시 내무부장으로
임명되었으리라, 군사 칭호는 소장이었다.

김동추 선생은 일제불어는 엄격한 환경에서 일하던 것이
광명스럽고 양지에 뜻 뜻 하게 나서서 일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살고 있는 부인 다찌야나 양과 두 아들을 평양에 데려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시기: 첫째로 경제난으로, 둘째로는 유엔
폭격기들이 매일 평양을 폭격하는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라, 마지
막으로 평양에 나와서는 살수있는 건물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쟁시기에도 평양 수뇌부 전체 간부들의 가족들은 전부 다 중국
 에 후퇴하여 북안강, 변길, 할빈 동정등 여러 도시들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 피난민들의 가족들을 방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로
 불어 특별 지시에 따라 각급에 대동부라는것을 조직하고
 이 가족의 민원부호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이것은
 정전이 초연된 1953년 8월까지 이렇게 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비밀리에서 해방된후 1952년에 가정방문차로
 유즈베코 공화국에 출장 갔다 왔으며, 1953년 말에는 자기 가족
 을 평양에 데려갔다. 사모님 따지어나 양은 남편을 따라
 북한에 가기는 하였으나 아직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물질적
 으로는 소회로운 생활을 할수 없었다. 전쟁시기 건물조건으로 말
 미다나 평양 내무부는 평양에서 20리나 떨어진 순안에 나와
 자리 잡고 있었다. 때문에 내무부장의 가족도 순안 주변 농촌에서
 살게하였다. 그러나 평양은 급속히 복구되어 중앙 권력 기구등은 전
 부다 1953년 말, 1954년 초에는 평양에 머무르게 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1957년 초에 평북시 내무부장 직무에서 내무부
 보안국장으로 명전되었다. 이 당시 내무상으로는 소련 출신 간부
 였던바, 그는 유명한 소련 계계배 간부 방학세였다. 방학세
 는 소련군 25공단 정치안전부 부장 보자인 소장과 함께 일하
 면서 북한에 입국하였던바, 북한으로 불어 소련군 철거시기인
 1948년 말에 김일성의 쓰딸린과의 특별 교섭에 따라 북
 환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는 그후 계속 중의한 보직들에서 사임
 하였다. 처음엔 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장, 정치보위국장
 1955년로 불어 내무상 이었다. 조선 노동당의 간부 숙청, 간부
 처단 지반으로 유형화점등 가장 비극적인 일들은 전부 다 방학세
 의 손을 거쳐서 집행되었다. 이렇게 신임을 받은 김일성의
 오른팔 역할로 하면서 살인자 역할도 하던 방학세도

1959년에 노련간부들에 대한 문제를 종말점을 시키기 (12.)
그를 철저히 복원노상으로 만들어 함흥에 내려보내 김동수선생의
재고양^한게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다.
방학세가 내무상 직무에서 떠나자 그 직무에는 별다른 출신
비교적 진보적인 간부 석산이 임명되었다.

내무상으로 석산이 들어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임
명된 내무상은 김동수 선생을 부상으로 추대하려고 무한
동의를 물었다. 그러나 김선생은 그 제의에 대해 거절
하였다. 그것은 내무부에 방학세가 상으로 제 실시 제일
주요 보직에 노련 출신 간부들이 강상호, 주광부, 김발택, 제이
김동수 등 전부 5명이 임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다 형
산 되고 김선생 한분만 남았으며 명전은 못듬거리었다
둘째로 김일성의 과거 자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관들은 다 형
산 하는 판에 자기가 재래직 급별이라 하여도 경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리용하여 노련에 귀환 할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이었다.

김동수 선생은 노련에 귀환 간부중 식량권호를 받지 않은 한
불라 10명 미만 중 한명으로 관세를 모면하고 귀환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1944년경 불어 조선 땅에 발흥되고 악전고
항에서 살아왔지만 북한 공민 자격을 가진 것은 1950년 서
북한군 입성 이후 노련 개계비 분부 전적 공식 공문에 의하여 취득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김동수 선생은 공식적으로 내무상 석산에
제 제기하기를: 자기는 원래 정규 생활 연령도 되고, 문예
도 있고, 늙은 북부들과 오래동안 갈라져 살게 된 관계로 연
급 생활은 귀향하여 북부들을 살려보려 할 것 같고 해마다
김동수 선생은 동족상잔 이후 북한에 노련 공민으로서 출생
하지 약 10년간 일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내무

상업 제외에 그 극적에서 소련 귀환을 비극화했다.
 리 다지야나 니콜라예브나 김동우 선생께 시집을 가서 아주
 글씨가 많은 생활을 하였으니, 독본 많이 배우고 살았으나 마
 지막 노년기에는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훈
 적인 이야기로 하였다. 평양에 두 아들을 데리고 평북서 내륙
 부장을 하고 있는 김동우 노장을 따라 나가서 전후 백백한
 경제 형편에서 살기위했지만 그로써 자기 남편, 일생의
 배필, 하늘보다 더 높은 그이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평양에서 1956년에 3남을 보게되니 그를 알렉산드르
 라고 이름 짓고 야든에 반 두째 모양으로 김이아 - 딸이아
 라고 해서 지어졌다. 1957년에는 자기 부친 70주년에 제
 하여 다지야나 양은 작은 아들만 데리고 유르베코한, 하유겐
 흐루 세베르나 마탁 골노즈에 왔다갔다. 이것은 아씨의
 전갈에 의하여 할 것, 자리가 조선에 나가서 남편하고 행복
 하게 산다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서도였다. 김선
 생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단정할 맘씨여서 부인이 행복하
 게 살것은 사실이다.

김선생은 소련에 귀환한후 열금을 유독하고 하유겐트시에
 사택으로 배정받고 아이들의 공부유독도 하여 계속 공부하게 하였다
 약 일년간 집에 앉아 휴식하고 부인과 함께 소련의 유명한
 코림 반드 휴양소에 가서 약 일개월간 휴식한다음 풀리
 모는 동굴 모스크바에 들러 여러 친구들을 만나 이편에 복한
 에서 사임하던 아라리, 사삼 겐초에 걸려 고생하던 야야기
 등 이야기를 귀곤 받으면서 한숨에 눈물도 짓고, 웃어보기도
 하였다. 이마기 중에서 가장 화제거리로 된것은 불쌍하게 앉은
 당한 러가이 이야기, 다음 박창동, 박의환, 최공학 최홍국 등 등

들에게 대하여, 그 외에도 박현영, 이봉영, 김주봉 선생님 조만석 선
 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약 2주일간 모스크바에서
 이 집 거실 돌아다니면서 휴식하다가 하유겐스에 돌아왔다.
 정은 조국에 청춘 시절을 다보아 조국의 변명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보았지만 인간이란 그 본성을 항유할수없는 북한에서는
 살수가 없어 하향 부천리 땅 외국에와 살게된 신세를 내일같이
 회생하면서 신문과 책을 보는것을 기본업으로 삼고 있다. 그 이후
 하유겐스에 도착한지 일년만에 1962년 말부터는 할자리를
 택하여 좀 넓은 일에 취직하려고 시내북부에 찾아갔다.
 시내북부장은 김동수 선생의 요구에 따라 하유겐스시 레닌구역
 경비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선생은 이 직위가 아주 귀양이었다. 이
 문에 이 직부에서 무려 16년간 일하시어 1948년봄에 잡내서 후
 식한바, 열년에 한 번씩 동부인민이 보낸 지역 여의 최명호들
 에 감다시여 축항하시였다.

김동수 선생은 1993년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지기의 인
 배된 리다지리애나를 잃게되었다. 다지리애나 사모님에
 대한 떠난후 김선생은 현래 정정하게 권력아를 알리
 반드라와 같이 웃으면서, 자기부부간어 살고있던 집은 본
 에게 양도하였다. 김선생의 현래 연세가 85세임에
 불구하고, 비교적 건전한 몸체와 정신상태를 보러한바서
 눈과 들을 만주며, 신문잡지들로 배너 놓지 않은 데 알리고
 있는바, 조국흥달에 대한 염원은 잊지 않고 있다.

1995년 12월 10일, 하유겐스에서 강학봉.